

8/9/26

설교 제목: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정결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5 장 1-20 절

장로들의 전통(막 7:1-23)

- 1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 2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
이다
-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 4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 5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 6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 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 10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 12 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 14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 15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 17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 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온 땅에 크게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지 않아 장로들의 전통(유전)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1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2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 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신학적 논쟁으로 번집니다.

예수님을 찾아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종교 회의로부터 갈릴리로 파견된 일종의 종교 조사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치솟자, 예수님이 행한 이적들의 실체를 조사한다는 명분 하에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모해할 목적으로, 그 구실을 찾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나 랍비 등 종교 지도자들로, 이들에게는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가 공식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성문화된 율법은 원리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능통한 장로들의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명 랍비들이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세세한 생활 규칙들을 정비하여 만든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유전)입니다.

그리고 BC 300-AD 800 년 사이에 구전되어 오던 장로들의 전통을 집대성하여 문서화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 더 권위있게 여겼다는데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이 상충될 경우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시 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는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의 풍토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풍속으로 인한 위생 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거기에는 손을 씻는 물의 양과 질, 물을 붓는 방법, 그것을 도와 주는 사람, 손의 자세 등등 여러가지 지침들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를 찾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계기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 간의 권위 순위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이 그것에 대해 인간이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보다 위 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고 하십니다.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예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 중 제 5 계명 말씀입니다.

제 5 계명은 대인 계명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이 계명을 범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엡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엡 6: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레 20:9)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여 교묘하게 이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고르반 제도'는 재산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겠다고 선언하면 그 재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든 규정입니다.

고르반 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정성껏 예물을 드린다는 순수한 신앙적인 서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모 부양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라고 고르반을 선언해도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모를 부양할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해놓고 실제로 성전에 바치지 않고 부모 부양을 의무를 면제 받았습니다.

이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범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뜻을 말살시키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의 이기적인 탐욕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이 만들어낸 악행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지 않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것이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은 장로의 전통보다 위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본 모습과 겉 모습이 다른 위선자라고 하신 첫 번째 기록입니다.

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에 치우친 유대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와 밀착하여 율법 정신은 망각한 채 종교적인 허울만 내세워 자신의 위치를 수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가증에 대해 비판했던 예언을 인용하여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채로 복잡한 의식과 엄격한 규율에만 집착하는,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위선적인 그들의 신앙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마치신후 예수님께서서는 무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계층의 차이로 인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논쟁을 지켜 보면서 예수님의 파격적인 말씀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더 이상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종교와 윤리의 본질인 내적 정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집중하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정결보다 내적인 정결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정결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10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의미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인간의 내면을 가리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위생적인 불결함을 의미하지만, 내면으로부터 표출되는 부도덕한 언행을 행하는것은 내면의 불결함 곧 영적 불결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크게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과 유전에 따른 모든 그릇된 교리는 근절되어 버릴 것이며, 위선자들은 파멸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12 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들이 아니니, 심판 날 의인의 자리에서 쫓겨나 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두라’는 말씀 속에 철저한 무관심과 유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영적인 맹인으로 보셨습니다.

영적인 맹인은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거짓의 길을 걷게 되어 파멸로 빠져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 맹인인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그들과 함께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옛부터 젖어온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완전한 영적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비로소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총대를 매고 나서서 예수님께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사고 청합니다.

15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 둔감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은 소화 작용을 거쳐 결국 배설되어 버리므로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근원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하시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전제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의 모든 가치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참된 종교는 인간의 본질을 다루어야지 외형적인 것만을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외면보다는 내면을, 형식보다는 내용을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사상이니.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자였습니

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을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 우리의 내면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의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탐욕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손보다 먼저 마음을 씻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적 행동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형식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히 씻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